

서평

『조선불교사상사: 유교의 시대를 가로지른 불교적 사유의 지형』(김용태, 202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필자가 김용태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즈음 서울대에서였다. 김용태 교수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을 다닐 때였다. 당시 서울대에서 한국불교사 전공자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를 받아 그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각자 전공하는 시대가 달라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면 서로 조언하기도 하고 『한국불교전서』의 원문을 강독하기도 했다. 이때의 소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필자도 지금까지 한국불교사를 공부하고 있다. 특히 김용태 교수는 항상 필자에게 귀감이 되는 연구자였다. 필자와 같은 시대를 전공하는 김용태 교수가 먼저 미개척된 정글을 헤쳐가듯이 나아가면 필자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빠뜨린 부분들만 연구해도 바쁠 지경이었다.

김용태 교수는 2006년 「부휴계의 계파인식과 보조유풍」(『보조사상』 25)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활동을 시작하여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박사논문 「조선후기 불교의 임제법통과 교학전통」을 발표하고, 2010년에는 박사논문을 보완하여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 임제법통과 교학전통』(신구문화사)이라는 저술을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에는 『토픽 한국사12』(여문책), 2021년에는 『토픽한국불교사』(여문책)를 출판하였고, 게다가 2014년에는 영어판 『Glocal History of Korean Buddhism』(Dongguk University Press), 2017년에는 일본어 판 『韓國佛敎史』(춘추사)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저와 공역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왕성한 학술 활동의 총화로 발간된 책이 오늘 필자가 서평을 쓰게 된 『조선불교사상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조선시대 불교 연구 100년의 재조명’에서는 제1장 ‘식민지기: 한국 불교 전통의 조형, 제2장 굴절’과 ‘해방 이후: 연구의 재개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은 ‘근대불교학의 성립과 동아시아적 수용’, ‘한국불교 연구의 시작과 토대 구축’, ‘조선시대 불교사의 개척자: 이능화와 다카하시 도루’로 세분하여 서술하고, 제2장은 ‘20세기 후반의 주제별 연구 성과’와 ‘21세기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및 전망’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목과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부에서는 지난 100년의 한국불교 연구사를 정리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거의 모든 한국 인문학이 그렇듯이 한국불교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으로 한국 역사를 설명했던 식민 사학자의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불교 역시 ‘쇠퇴’만을 강조했던 식민 사학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용태 교수는 “2000년 이후 조선시대 불교 연구는 다양한 주제 및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시각의 도입으로 지평이 확대되었고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2부 ‘불교사상의 계승과 선과 교의 융합’에서는 제1장 ‘불교와 유교의 교체와 전통의 유산’, 제2장 ‘선과 법통: 청허 휴정의 기풍과 임제법통의 선양’, 제3장 ‘교와 강학: 이력과정 불서와 화엄의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승유역불’의 개념이 1906년 10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 논설에서 처음 등장하고 1910년대 이후 불교의 침체라고 하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전형적인 식이 고착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시대 만큼의 위상을 갖

지는 못하였지만 승유억불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고 신라시대 이래의 사상과 신앙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조선중기 청허휴정의 선교겸수 사상이 조선후기 불교계의 주류 사상이 되어, 임제법통을 중심으로 禪의 불교전통이 확립되었고 활발한 불서 간행으로 강학이 크게 성행하였다. 특히 1681년 중국 표류선에 의해 전래된 가홍대장경의 『화엄경소초』를 복각한 이후 화엄교학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로써 조선후기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한 청허 휴정은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를 수행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18세기 이후 화엄을 필두로 한 교학 전통은 간화선 및 임제법통과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3부 ‘조선 불교를 빛낸 사상과 실천의 계보’에서는 제1장 ‘불교의 선양과 종통의 확립’, 제2장 ‘계파를 대표하는 화엄학의 맞수’, 제3장 ‘유불 교류의 장에서 선 논쟁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유학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바뀌었다. 18세기에는 청허 휴정과 사명 유정의 사액 사원이 등장하고 사명 유정에 대한 구국의 영웅 이미지도 형성되었다. 1천명이 넘게 모인 화엄법회가 곳곳에서 설행되었고 청허계와 부휴계의 사상 대립이 있었다. 18세기에는 청허계와 부휴계를 대표하는 강사가 심성 논쟁을 벌였고, 19세기에는 청허계 내부에서 선 논쟁을 벌였다. 청허계 편양파의 법맥을 이은 연담 유일은 화엄을 중심으로 교학을 집대성하여 다수의 私記를 남겼다. 연담 유일과 심성 논쟁을 벌인 묵암 최눌은 부휴계의 적전으로서 화엄대종사로 추송되었다. 그는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승역의 부담이 일반 양역보다 커져서 환속하는 승려들이 늘어나 사찰들이 비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백파 공선과 초의 의순의 선 논쟁에 추사 김정희가 참여하여 백파 공선과 논쟁을 벌였다.

제4부 ‘유교사회의 종교적 지형과 시대성’에서는 제1장 ‘호국의 기치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2장 ‘세속 의례의 수용과 신앙의 외연 확대’, 제3장 ‘염불 정토의 확산과 내세의 이정표’라는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양란에서 의승군 활동은 유학자들이 불교에 대해 효와 충을 저버린 오랑캐 종교라고 비판했던 것을 일거에 잠재우고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양란 이후에도 승려들이 산성과 사고를 지키는 등 국역 체계 안에서 승역이 운용되었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면세·면역 계층이었던 승려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결국 18세기 이후에는 승역 부담이 양역 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대신에 불교계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수행과 신앙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유교와 불교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유교의 오복제가 불교 의례에 정착되었고 유교의 도통과 족보 관념이 불교의 법통에 영향을 미쳤다. 도교와 산신의 민간 신앙이 불교 전통에 포섭되어 칠성각과 산신각의 건립이 활발해졌다. 아울러 염불신앙이 선의 경절문과 교의 원돈문과 더불어 동등한 하나의 정토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확산된 염불신앙이 아이러니하게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을 반감시켰다. 이에 김용태 교수는 “천주교가 조선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데에는 1,5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토착화, 기층화의 길을 걸어온 불교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김용태 교수는 동양사 및 한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불교를 서술하였다. 그야말로 동양사에서 바라본 조선시대사이고, 조선시대사에서 바라본 불교계의 모습이었다. 조선시대 불교를 전공하였지만 조선불교에 머물지 않고 중국과 일본 불교까지 영역을 넓혀 공부한 통찰력으로써 조선불교를 바라보고 있다. 일천한 지식을 가진 필자로서는 그 지식의 넓이에 탄복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과 아쉬운 점을 가지게 된다.

먼저 불교사와 불교사상사의 영역 문제이다. 김용태 교수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이후 10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사상사를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에게는 이 책이 사상사를 중심으로 재편했다기보다 10년 전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더욱 풍부하게 서술한 것으로 읽혔다. 불교사상뿐만 아니라 승정, 호국, 의례, 신앙의 영역을 충망

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용으로 볼 때 ‘불교사상사’라기 보다 ‘불교사’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사상사의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승려의 저술과 문집들을 분석하여 사상적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하는가를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불교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조선중기 이후 정착되었다고 보이는 선교겸수 혹은 선교일치의 사상적 경향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또 그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때 불교사상사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조선불교사상사를 다룬 책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전기 불교사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헌으로 『현정론』, 『유석질의론』, 『십현담요해』, 『허응당집』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의 흐름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고 청허 휴정 이후의 사상적 흐름에 집중되어 서술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그래도 조선후기 임제법통의 성립과 선교겸수의 경향, 그리고 삼문(경절문·원돈문·염불문)의 수행을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세 번째로 사상과 신앙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다. 종교에서 사상과 신앙을 구분하여 서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다. 사상은 신앙을 뒷받침하고 신앙은 사상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왕 제목에 ‘사상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사상의 측면과 신앙의 측면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을까. 가령 백파 공선의 3종선과 초의 의순의 2종선 논쟁이 사상적 측면이라면 백파 공선이 편찬한 『선가귀감』은 신앙 의례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화엄경』을 강학하며 서술한 私記는 사상의 측면이지만 『보현행원품』을 간행하고 화엄성증을 그린 불화는 신앙의 영역에서, 또 정토 왕생에 관한 저술은 사상의 영역에서 다루고 염불은 신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의 세 가지 문제는 사실 필자인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불교사를 연구한다고 하면 사상사 혹은 종교사의 영역에 포함시키지만 나 자신도 지금까지 제대로 사상사의 측면에서 다룬 논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사 속에 불교의 위상이나 역할을 밝히기에 급급했고 문헌에 나타난 불교계의 외피적인 모습을 소개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향후 불교사 영역도 더 세분화되어 깊이 있는 연구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교수의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